

그는 클럽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그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신임 감독인 김태형은 집토끼를 잡기 위해 취임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7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김태형 감독이 롯데의 체질을 개선할 새 수장으로 **24일**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 가장 흥미로운 이슈 중 하나는 전현직 주장이자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갖춘 전준우(**37**)와 안치홍(**33**)의 거취입니다.

롯데는 가을야구에서 실패했지만 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팀의 원투펀치 선수 두 명(전준우, 안치홍)이 **FA**이기 때문에 구단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고 했다"며 남은 **FA** 계약을 오프시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야수 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전준우는 "조선 **4번 타자**" 이대호의 은퇴 후 팀 라인업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준우는 타율 **0.312/154안타/17홈런/80득점/77타점/출루율 0.381/OPS 0.852** 등 거의 타격 전 지표에서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리그 내내 최다 안타 **7위**, 득점 **9위**, 타율 **10위**를 기록하며 변함없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안치홍은 전준우에 이어 롯데 타선에서도 **121경기**에서 타율 **0.292/57득점/8홈런/63타점/출루율 0.374/출루율 0.400/OPS 0.774**를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해 장타율은 롯데 이적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야 포지션 선수로서의 성격이 강한 2루수에 국한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안치홍은 2.85의 WAR(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며 리그 2루수 중 김혜성(키움 6.19), 박민우(NC, 4.0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안치홍을 대체할 선수가 리그 내에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도 좋지만 그 가치가 현장에서만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전직 또는 현직 주장으로 입증된 팀 선수들을 결속시키는 리더십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링크짱](#)

김태형 감독도 팀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 감독은 "전준우와 안치홍이라는 두 선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선수들의 중심을 잡고 있는 두 선수"라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리더(감독)가 어수선해져서 롯데라는 팀에서 확실한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팀을 잘 이끌어야 할 것 같고, 두 선수인 전준우와 안치홍이 팀 내 중심 포인트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두 선수가 하나로 뭉칠 새로운 롯데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나란히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오는 2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김 감독의 취임식에는 전준우 예비 FA, 안치홍 등 모든 선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직 주장 안치홍과 말형 전준우 감독이 김 감독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